

청소년정책토론회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방안

일 시 : 2021.12.2 (목) 14:00 ~ 16:00

| 온라인 생중계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방안

■ 추진 개요

- 일시 : 2021. 12. 2.(목), 14:00 ~ 16:00
- 장소 : LW컨벤션 (온라인 생중계)
- 주제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방안」
- 주최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세부 일정

사회 : **하형석** 센터장(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시간	구분	주요내용
13:30~14:00		등록 (온라인 접속)
14:00~14:10	개회	인사말씀 김현철 원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인사말씀 문유경 원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4:10~14:40	주제 발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방안 연구 결과 - 최윤정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미래연구본부)
14:40~14:50		휴식 및 라운드 테이블 준비
14:50~15:50	라운드 테이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방안 토론 - 좌장 : 최창욱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미래생태연구실) - 패널 : 김미희 관장(부천시청소년수련관) 유성렬 교수(백석대학교) 이명화 센터장(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전길양 교수(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15:50~16:0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6:00		폐 회

목 차

○ 주제발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방안 연구 결과

최윤정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미래연구본부) 1

○ 토론 27

김미희 관장(부천시청소년수련관) /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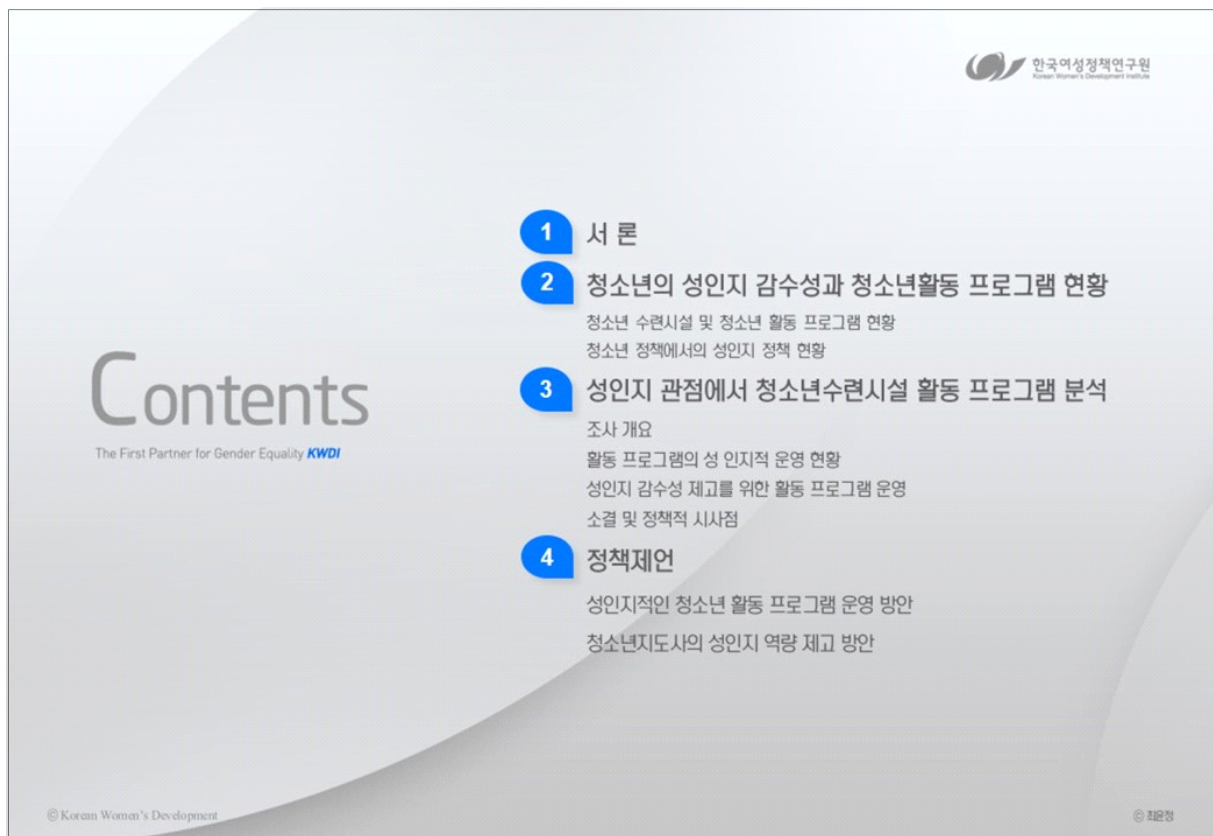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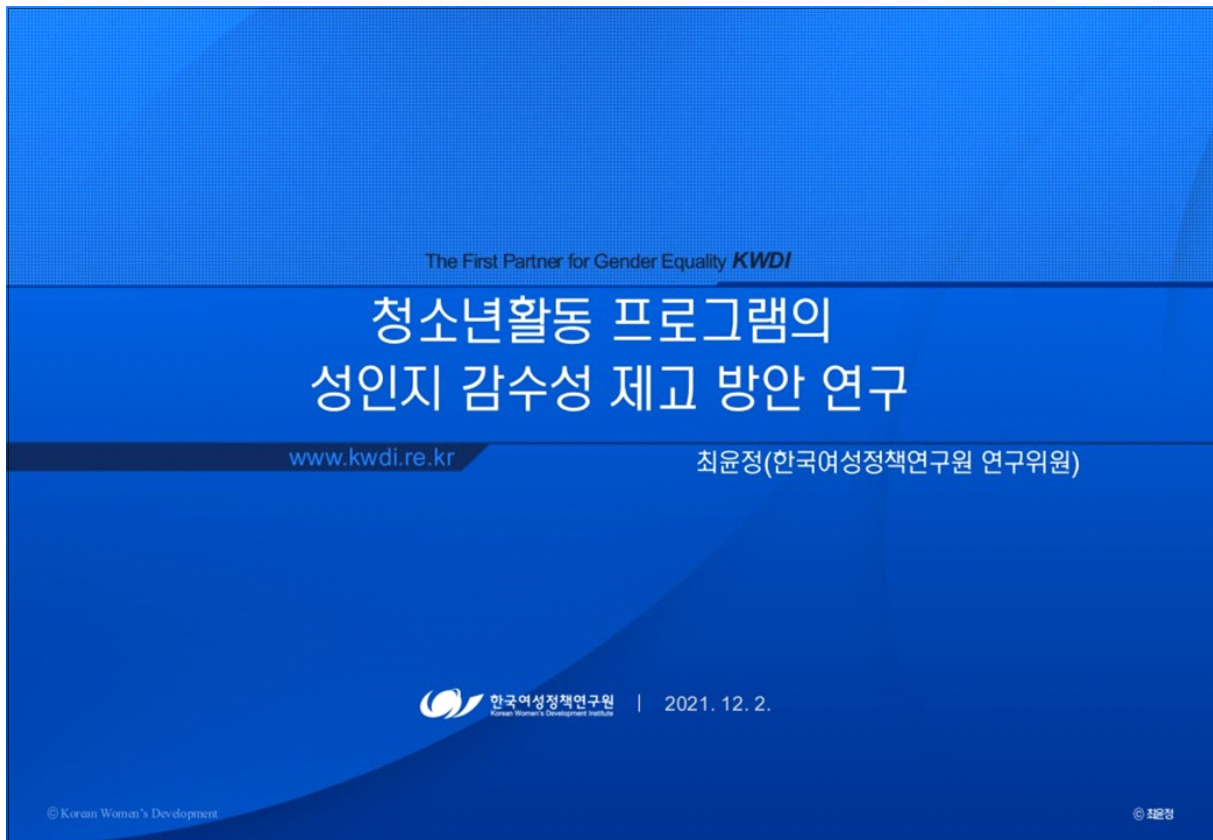
유성렬 교수(백석대학교) /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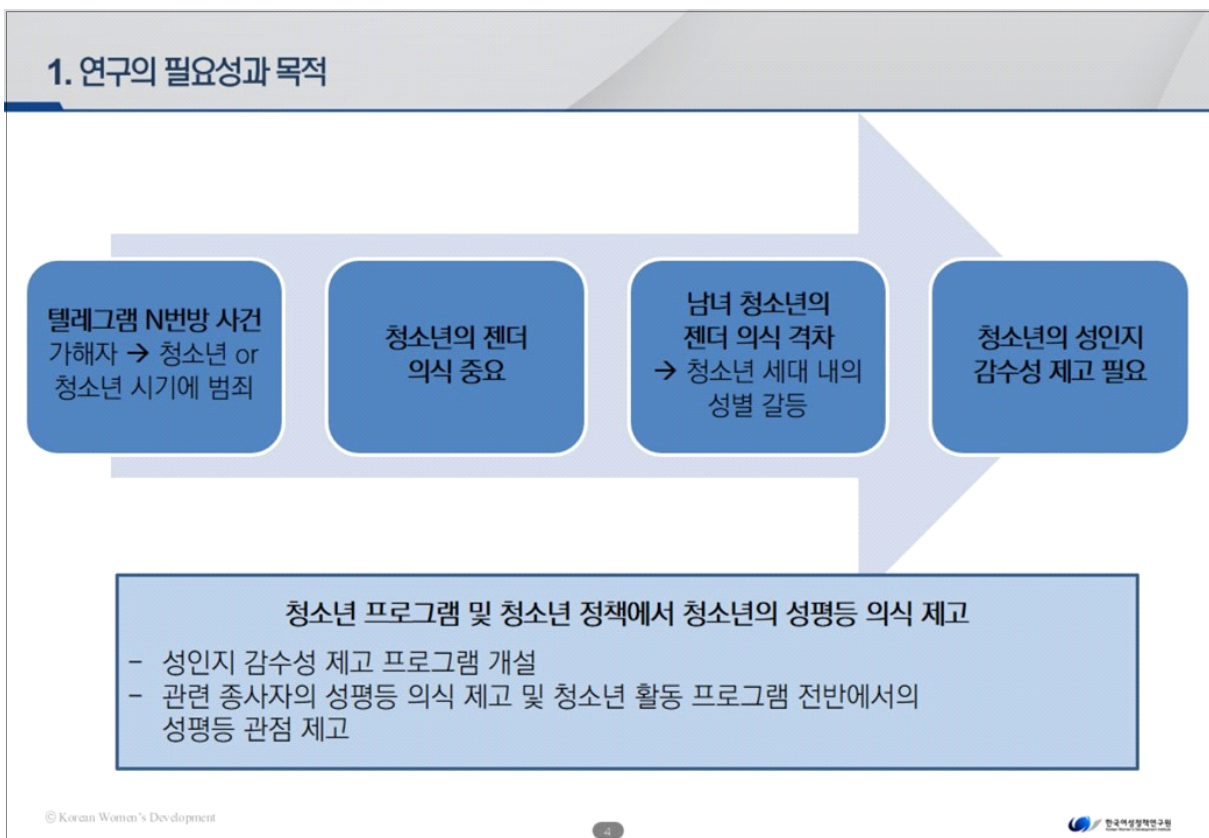
이명화 센터장(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 38

전길양 교수(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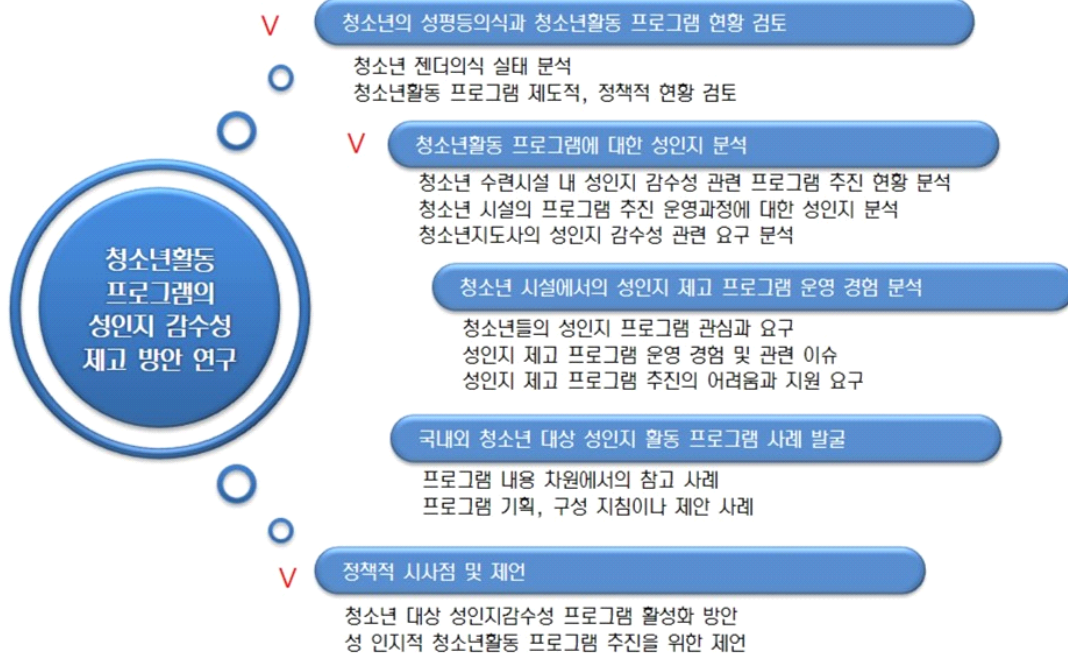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방안 연구 결과

최윤정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미래연구본부)





2. 연구내용



© Korean Women's Development

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 연구방법



© Korean Women's Development

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Chapter

The First Partner for Gender Equality KWDI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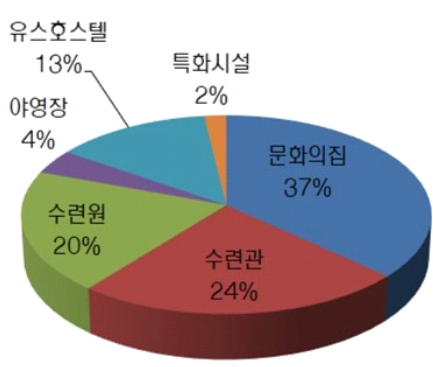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현황과 관련 정책

- ✓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현황
- ✓ 성인지감수성 제고를 위한 청소년 정책

© Korean Women's Development
최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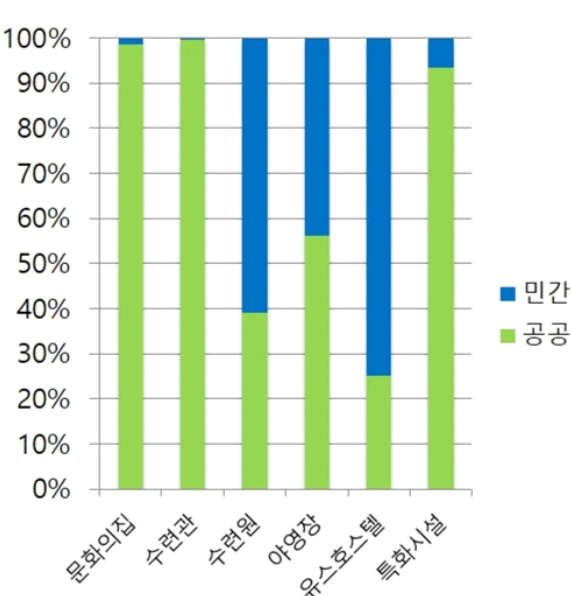
1.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현황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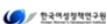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설치유형별 청소년수련시설 분포>



시설유형	민간 (%)	공공 (%)
문화의집	~10	~90
수련관	~10	~90
수련원	~40	~60
야영장	~45	~55
청소년호스텔	~75	~25
특화시설	~10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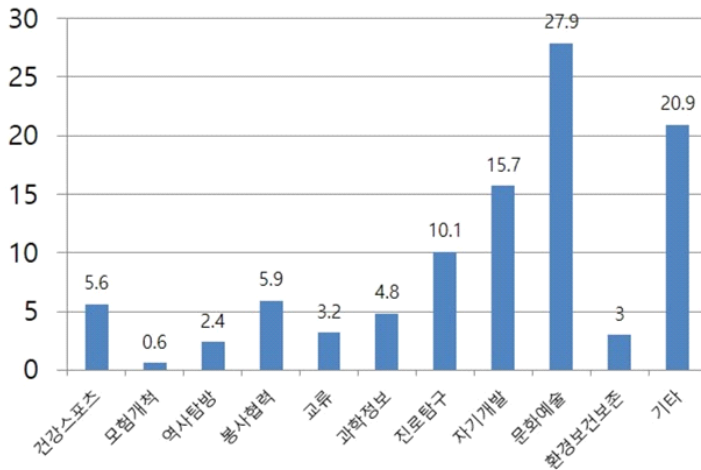
© Korean Women's Development



1.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현황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현황

<활동영역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비율>



한국청소년진흥원 제공자료20201.7.6

© Korean Women's Development

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2020년까지 운영된
프로그램에서 모집한
전체 인원수 : 1,428,317명,
평균: 138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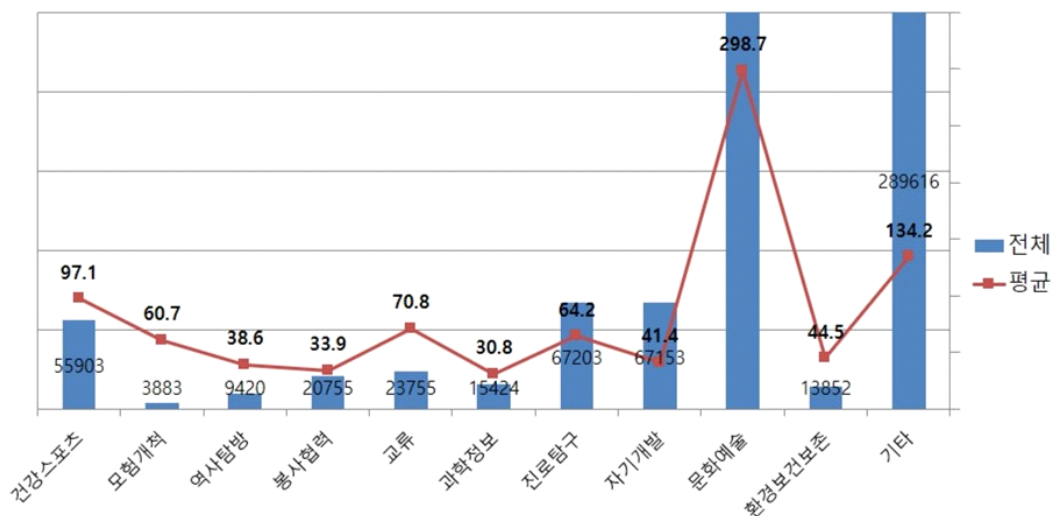
청소년활동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모집 인원 수 :

- 1위: 문화예술 862,011 명
- 2위: 진로탐구 67,203 명
- 3위: 자기개발 67,153 명

1.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현황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활동영역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모집 인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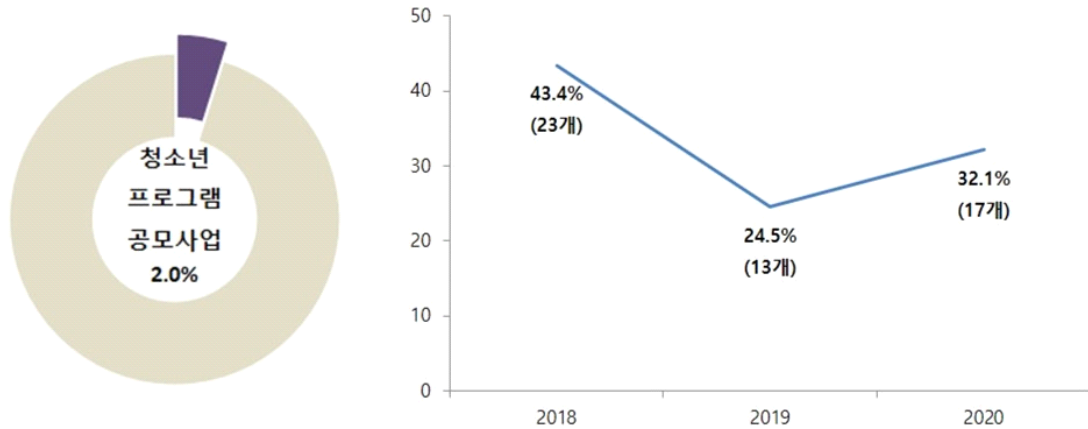
© Korean Women's Development

1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현황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현황



© Korean Women's Develo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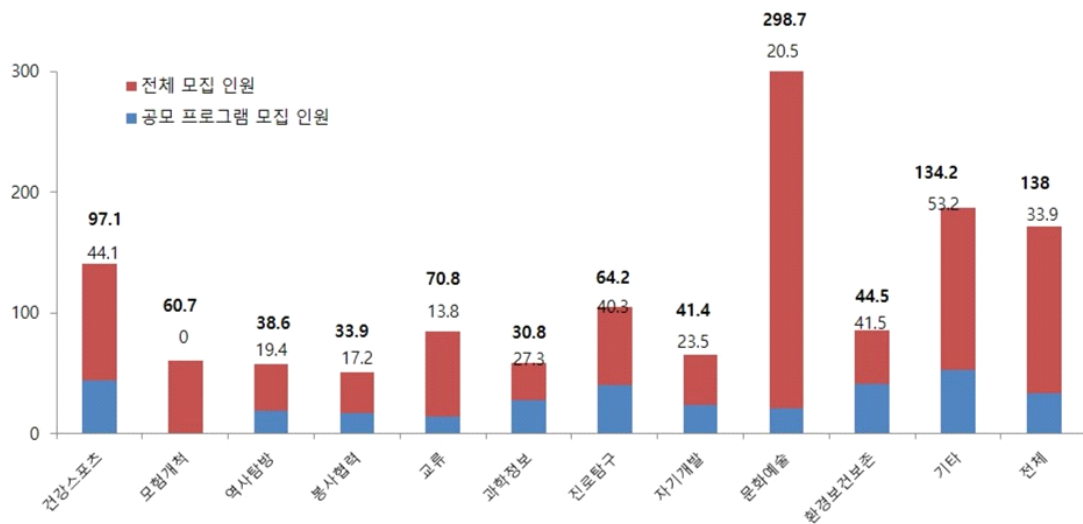
1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1.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현황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평균 모집 인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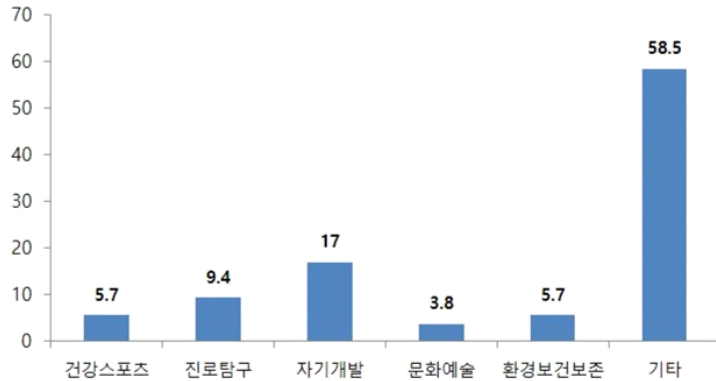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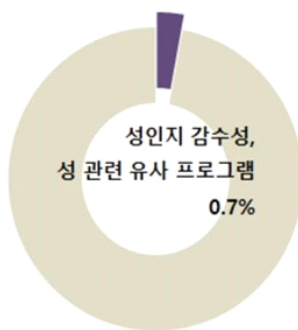
© Korean Women's Development

1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1.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현황

성인지감수성 제고 프로그램 현황



〈활동영역별 성인지 감수성 제고 프로그램 비율〉

© Korean Women's Development

1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성인지감수성 제고를 위한 청소년 정책

- 전통적으로 청소년정책에서 젠더 관련 이슈를 다루는 방식 ⇒ '청소년 성 보호' 관점 (선도 및 보호주의 관점)
 - 청소년정책 자체가 문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책 중심의 정책으로부터 출발
 - 초창기 청소년정책의 젠더 이슈는 청소년의 성 보호나, 유해물 관련 정책 중심

구분	청소년문제개선종합대책 (1985~1989)	청소년육성종합계획 (1986~1990)	한국청소년기본계획 (1991~1992)	제1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 (1993~1998)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 (1998~2002)	제3차 청소년육성 기본계획 (2003~2007)	제4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수정본) (2008~2012)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13~2017)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18~2022)
주요 사업 부문	1) 청소년 건전 육성 2) 가정의 교육적 기능 강화 3) 학교 교육 기능의 강화 4) 학교 외 청소년의 보호·육성 5) 청소년 유해사회 환경의 정비 6) 비행청소년의 선도·교화 7) 청소년문제에 대한 법·국인적 관심 환기 8) 청소년추진체계 외 강화	1) 청소년 건전 활동 지원 2) 가정의 교육 기능 강화 3) 학교의 선도 기능 강화 4) 청소년 유해사회 환경 정비 5) 취약계층 청소년 보호 6) 청소년육성 추진기반 조성 ※1990년에 비행청소년 선도·교화 부문이 다시 포함되어 7개 부문으로 확대	1) 청소년활동(수련활동) 2) 청소년복지 3) 청소년 교육 4) 법적보호 5) 재정확충 운영	1) 가정과 학교의 역할 확대 2) 청소년보호 및 선도 강화 3) 건전한 청소년활동의 지원 4) 청소년 교류 확대 강화 5) 국민 참여 확산 및 추진체계 강화	1)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자율적인 참여 기회 확대 2)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문화체육 중심의 수련활동 체제 구축 3) 국제화 정보화 시대의 주도능력 배양 4)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자립지원 5)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 강화와 참여확산 ※ 추진체제의 정비	1) 청소년 관리·신장 및 자발적 참여 기반 구축 2) 주5일제 대비 창의적 청소년활동 여건 조성 3) 취약계층 청소년복지 지원 강화 4) 청소년건강 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 5) 추진체계 정비 및 법·국인적 참여 확산	1)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 증진 2) 가족기능 및 사회인적 역량 강화 3)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4)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정비	1)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2)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3)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4)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5)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 강화	1)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2)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3) 청소년 지원 및 보호 강화 4)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추진 기구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제2행정조정관 (청소년대책심의회)	체육부 청소년국 (청소년정책조정실)	체육청소년부 (청소년정책조정실)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국가청소년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출처: 조남익(2011), p.28-33; 관계부처합동(2013); 관계부처합동(2018)

© Korean Women's Development

1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성인지감수성 제고를 위한 청소년 정책

■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 청소년정책 차원에서 양성평등의식 등 성인지감수성 제고 차원의 정책이 처음으로 거론
-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정책을 처음 이관받은 시점, 주무부처의 영향을 추측
- 세부과제에도 해당하지 않은 수준으로 연도별 시행점검 미포함 사항

1.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 증진
- 1-2. 시민역량 증진 및 인성교육 강화
- 1-2-2. 청소년 언어 순화 및 인성교육 강화
 - 인성함양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강화
 - 청소년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여성가족부)
 - 초·중등교사의 양성평등 교수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실시
 - ※ 원격교육연수원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 교과서의 성차별적 내용 모니터링 및 개선의견 제시

출처: 관계부처합동(2010).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수정, 보완), p. 40.

■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 그나마 정책들도 모두 사라짐.
- 청소년의 인성함양과 관련, 가정 내 인성교육과 언어순화 정도

2. 성인지감수성 제고를 위한 청소년 정책

■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 양성평등교육, 젠더폭력예방교육, 성교육 등 젠더 관련 교육들을 주로 배치
- 직업교육 및 진로체험활동이나, 문화활동, 스포츠활동, 그 외 교류활동, 또는 종사자의 성평등의식 제고와 같이 다양한 영역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한계
- 신규 정책이 아닌, 기존에 정부가 이미 하고 있던 정책들을 잘 정렬하는 수준 모두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의 추진과제로 구성 => 청소년정책에서의 의지는 소극적

1.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 1-3.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지원
- 1-3-2. 양성평등 의식 제고
 - **청소년을 위한 양성평등 관련 기초 및 교육 활성화(교육부, 여성가족부)**
 - 양성평등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진로·직업·가정 및 활동(교육부)
 - 진단 실시 및 진단 결과 활용으로 양성평등한 학교문화 기반 마련
 - 청소년 연령대별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 개발(여성가족부)
 - 청소년 활동과 연계한 양성평등 프로그램 확산(여성가족부)
 - 교육 콘텐츠 개발과 청소년 수련시설에 프로그램 제공
 - 청소년시설 종사자 직무연수에 양성평등 교육 강화
 - 여성에 대한 상호이해 프로그램 개발 및 양성평등 캠페인 실시 등(여성가족부)
 - 여성혐오 및 남성혐오 등 양성간의 대립적인 문화를 해소하는 프로그램 개발·보급
 - 대중매체·온라인상 성차별 모니터링 기능 강화

□ **청소년 대상 젠더폭력예방교육 강화(여성가족부)**

- 초·중·고등학교 내 폭력예방 교육 강화
-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 강화 및 폭력예방 콘텐츠 개발
- 생활속 성고정관념 및 성차별 언행 사례 공유 및 예방 교육

□ **양성평등 관점에 기반한 청소년 성교육 강화(여성가족부)**

- 청소년 성교육 전문 교사 양성
- 학교 지역 내 청소년성문화센터 등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성인권 교육 내실화 지원
- 청소년 성교육 전문교사 양성 및 청소년성문화센터 이용 활성화
 - 청소년 성문화센터(7년 전국 58개)를 통해 성 인권 가치관 및 폭력 예방을 위한 전문 성교육 프로그램 제공

2. 성인지감수성 제고를 위한 청소년 정책

1. 성평등의식 제고 프로그램 공모 사업 추진

▪ '19년부터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성평등 의식 제고' 부분을 포함

- 지금까지 총 15개 프로그램, 같은 기간 진행된 공모 프로그램(255개) 대비 5.9% 수준
- 누적 연인원 10,367명('19년과 '20년만) 참여, 전체 참여인원(156,469명)의 6.6% 차지
-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 시도(자체 모집/학교연계, 역사/미디어 등)

분야	2019년	2020년	2021년
프로그램 수	4개	7개	4개
참여 인원	4,043명	6,324명	추진중
선정 프로그램	• [대구달성] 소소한 나의 평일(평등한 일상) • [부천여성] 성의식 격차는 이렇게 바뀐다-성격차이 • [서울금천] 청소년들의 평등을 향한 외침-아우성 • [서울성동] 위대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소원하는 여성독립운동가로 바라는 청소년 성평등 운동-We are one	• [부천여성] 성의식 격차는 이렇게 바뀐다-성격차이 시즌2 • [서울광진] 도(전하고) 시(도하는) 속의 성평등 라디오 • [부산수영] 캐릭터 개판차기-내안의 그X찾기 • [여성과장애인인권] 장애청소년을 위한 양성평등 의식 업글 프로젝트 • [경기의왕] 양치기소년8소년 양성평등초고박기 • [의정부] 성.리.학(성평등을 이해하고 배우다) • [천안태조산] 똑똑이 성에 누가 새나요?	• [부천시] 청소년, 성인지에게 묻다 • [시흥여성의회] 청소년인권영화제 • [수원영통] 동화이동: 동화로 다시 보는 젠더 이야기 • [출남예산] 나만없어, 나만없어, 성인 자감수성!

출처: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9);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0);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1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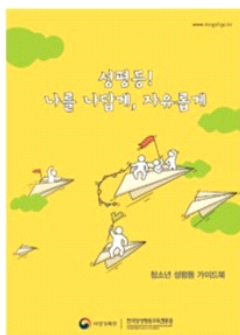
2. 성인지감수성 제고를 위한 청소년 정책

2. 성평등 콘텐츠 개발

- 청소년 성평등교육 가이드북
「성평등! 나를 나답게, 자유롭게」
- 간략한 워크북 형태
- 성별 고정관념, 가정/일터/학교에서의 성차별 일상에서의 혐오표현 인식, 성평등 사회 인식

- 청소년 성평등교육 영상
「성평등, 오늘부터 나부터!」

- 15분 분량의 간략한 동영상
- 수련시설을 배경으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성차별 및 성별 고정관념 사례를 3개 에피소드로 구성



CONTENTS	
1. 이끌어 내면 얻는 것	05
2. 내가 나답게 살아가고 싶어요	08
3. 성평등, 오늘부터 나부터!	11
4. 성평등, 오늘부터 나부터!	11
5. 성평등, 오늘부터 나부터!	11
6. 성평등, 오늘부터 나부터!	11
7. 성평등, 오늘부터 나부터!	11
8. 성평등, 오늘부터 나부터!	11
9. 성평등, 오늘부터 나부터!	11
10. 성평등, 오늘부터 나부터!	11
11. 성평등, 오늘부터 나부터!	11
12. 성평등, 오늘부터 나부터!	11
13. 성평등, 오늘부터 나부터!	11
14. 성평등, 오늘부터 나부터!	11
15. 성평등, 오늘부터 나부터!	11
16. 성평등, 오늘부터 나부터!	11
17. 성평등, 오늘부터 나부터!	11
18. 성평등, 오늘부터 나부터!	11
19. 성평등, 오늘부터 나부터!	11
20. 성평등, 오늘부터 나부터!	11



2. 성인지감수성 제고를 위한 청소년 정책

3. 청소년 지도사 대상 성인지교육

•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 자격 연수 31시간 중 성평등 관련 교육 3시간(1, 2, 3급 동일)
- 총 3개 과목 : '성희롱·성폭력 예방(1시간)', '성평등교육(1시간)', '성인지 및 인권(1시간)'
- 교재 내용 : 성폭력, 성평등, 인권으로 제시
 - 1) 성폭력 : 성/성인지 감수성/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을 없애기 위한 노력
 - 2) 성평등 : 성평등의 개념, 성평등 사회를 만드는 방법 및 결단
 - 3) 인권 : 인권의 개념, 차별의 개념, 인권 감수성 높이는 방법

•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 전체 16시간 중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1시간)'과 '성평등교육(1시간)' 두 과목(2시간)
-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에 위탁, 성인지 전문과정을 개설
 - '20년의 경우, 총 26명의 청소년지도사가 해당 교육에 참여
 - '21년에도 2일짜리 온라인 교육(7시간)으로 1회 실시

2. 성인지감수성 제고를 위한 청소년 정책

3. 청소년 지도사 대상 성인지교육

〈표〉 청소년지도사 성인지 전문과정 내용

교과목 (시간)	교육내용
성인지 관점 이해 및 최근 성평등 이슈 살펴보기 (2h)	• 페미니즘, 양성평등, 성평등을 둘러싼 대중적 '오해' 넘어서기 • 성인지 관점 이해, 특정 '분야'가 아니라 '인식론'으로 접근하기 • 성평등 주제로 청소년과 교육현장에서 만나기
청소년 문화 이해 : 차별구조와 혐오표현을 중심으로 (2h)	• 일상 속 차별과 혐오에 대한 성찰을 통해 차별 구조를 발견하고 사회적 약자의 존재와 삶의 경험에 대한 감각 키우기 • 청소년이 경험하는 복합적 차별(성, 나이 등)의 양상 및 청소년과의 평등한 관계 맺기 • 다름의 인정, 고정관념의 의심, 차별의 태도를 점검하기, 문제를 드러내는 질문하기 등 변화를 위한 실천 모색하기
성평등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기획·운영 실제 (2.5h)	• 성인지 관점에 기반하여 청소년 지도사 자신의 감수성, 조직문화, 활동 프로그램 낮설게 보기 • 활동프로그램을 기획·운영·평가 시 청소년 지도자의 성인지 관점 반영의 중요성 및 관련 자료 활용하기 • 활동프로그램 뿐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 학생 간/학생과 청소년지도자 간 상호작용 등 잠재적 교육과정 속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 모니터링 필요



Chapter

The First Partner for Gender Equality KWDI

3

청소년수련시설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 ✓ 조사개요
- ✓ 활동 프로그램의 성인지적 운영 현황
- ✓ 성인지감수성 제고 프로그램 운영 현황

© Korean Women's Development
최윤정

1. 조사개요

-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 대상(799개) 성인지감수성 관련 프로그램 현황 및 성인지적 운영 현황 파악
- 조사기간은 2021. 7.28~8.10.(2주)간, 웹조사 실시
- 조사내용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성인지적 기획 및 운영 현황
 - 성인지감수성 관련 프로그램 운영 경험과 관련 현황

〈표〉응답 기관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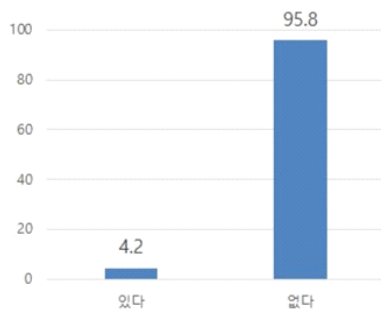
구분		전체
시설유형	수련관	34.4
	문화의집 등	52.6
	숙박형기관	13.0
지역	수도권	31.9
	충청·강원권	23.6
	전라·제주권	17.4
	경상권	27.0
운영형태	직영	31.7
	위탁·대행	68.3
전체		407개소(100.0%)

2. 활동 프로그램의 성인지적 운영 현황

활동 프로그램의 성별 특성

- 성별 분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4.2%
- 성인지감수성 관련 지원/지침/운영 기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
- 남성과 여성 프로그램의 내용은 전형적인 성별 분리 분야들

<표> 성별 분리 프로그램 운영 여부



남성

- 스포츠(풋살, 농구, 탁구)
- 경제교육
- 독서

여성

- 음악(핸드벨악단)
- 스포츠(피구, 발레, 벨리댄스, 방송댄스)
- 생리대 제작
- 메이크업
- 요리
- 엄마동행활동

© Korean Women's Development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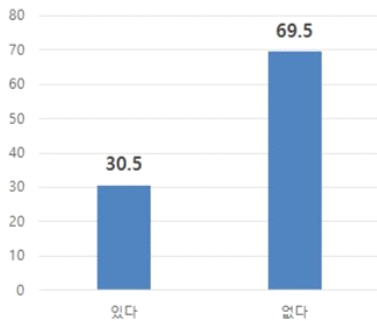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활동 프로그램의 성인지적 운영 현황

성별 집중 프로그램

- 성별 분리는 아니지만, 참여자의 80% 이상이 특정 성별인 프로그램 30.5%
- 남성 청소년은 스포츠, 과학, 모험 등에 비해
여성 청소년은 다이어트 관련 스포츠로 점철되고, 진로 또한 여초직업이 많으며, 문화 예술 참여가 높음
보다 심화된 성별 분업과 분리가 드러남

<표> 성별 집중 프로그램 운영 여부



남성

- 스포츠(탁구, 농구, 축구, 태권도, 당구, 헬스, 포켓볼, e-스포츠, 레일바이크, 바둑)
- 과학(실험, 비트브릭, 로봇, 드론, 코딩, 아두이노, 4D프레임, 그라모델, 미니카, 우주과학, 그 외 이론)
- 자기개발(리더십, 자기칭취)
- 모험개척(국토순례)

여성

- 스포츠(요가, 필라테스, 방송댄스, 발레, 복싱로빅, 필로싱)
- 진로탐구(파티쉐, 바리스타, 네일아트, 웹툰작가)
- 자기개발(메이크업 및 이미지, 인문학, 학습)
- 문화예술(공예, 홈패션, 바이올린, 가야금, 뜨개질, 플롯, 도자기, 가족, 플라워)

© Korean Women's Develo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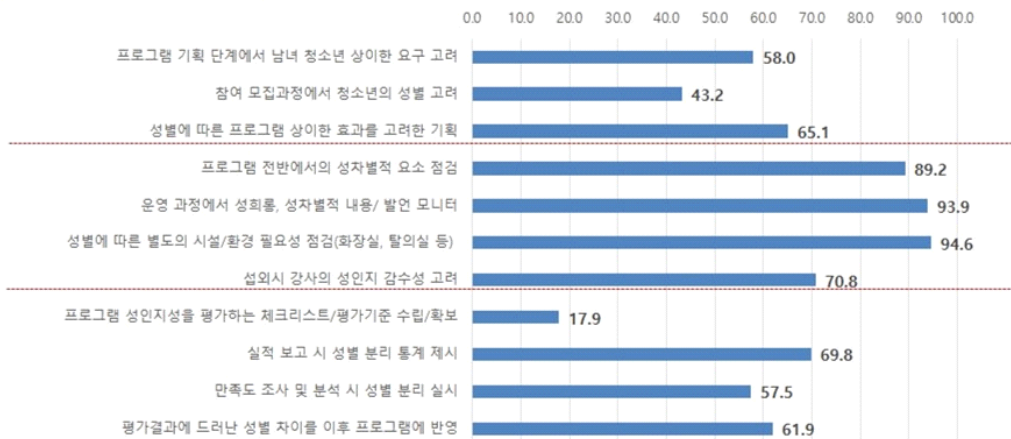
2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활동 프로그램의 성인지적 운영 현황

성인지적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성인지적인 프로그램 기획/집행/평가 현황을 점검한 결과;
평가와 기획 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집행 부분에서의 반영율은 상대적으로 높음
- 수요나 모집에서의 요구를 고려한다거나, 그 효과를 확인하는 노력은 절반 수준
- 성인지적 관점의 평가기준과 체크리스트 갖춘 비율은 매우 저조



<표> 성인지적인 프로그램 기획,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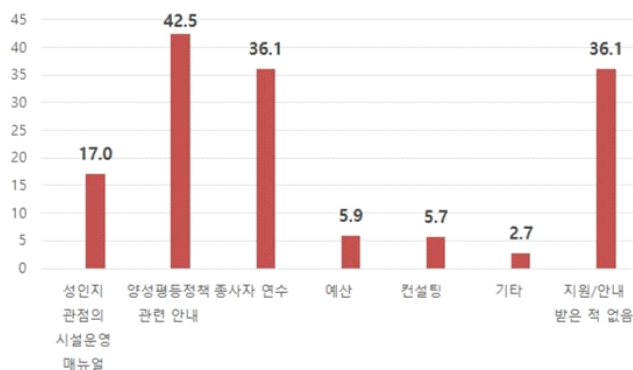
© Korean Women's Development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활동 프로그램의 성인지적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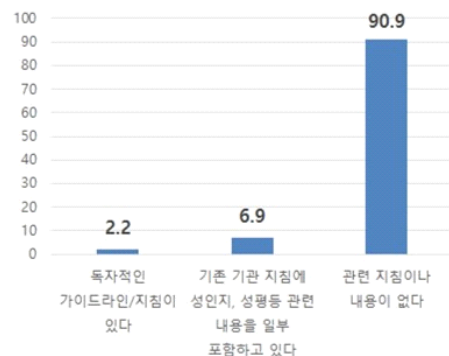
성인지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 및 지침 현황

- 성인지적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안내, 지원은 취약한 편. 36.1%가 어떠한 안내나 지원도 못 받음.
- 매뉴얼은 17.0%이고, 예산이나 컨설팅 비율은 6% 미만
- 관련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없는 시설이 90% 이상, 있어도 일부 포함 정도가 7%, 자체 기준을 가지는 경우는 2.2%에 불과
- 실제 내용은 교육이수, 젠더담당관 지정, 행동지침, 가이드북 활용 등으로 정책



<표> 정부/지자체의 지원/안내 현황

© Korean Women's Develo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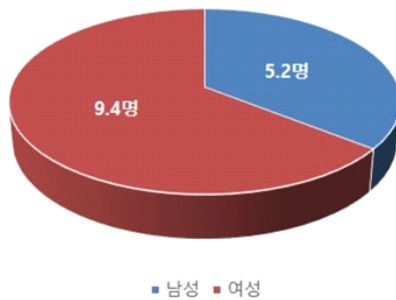
<표> 관련 매뉴얼/지침 현황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활동 프로그램의 성인지적 운영 현황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성별 구성과 모집

- 청운위에서의 성별 구성은 여성 9.4명, 남성 5.2명으로 여성이 더 많이 참여
- 모집 시 성비를 고려하는 경우는 약 삼분의 일 수준으로
의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 보다는 성비 과대 시 조정하는 방식을 많이 취함



<표> 청운위에서의 평균 성별 구성



<표> 청운위 모집에서의 성별 반영

© Korean Women's Develo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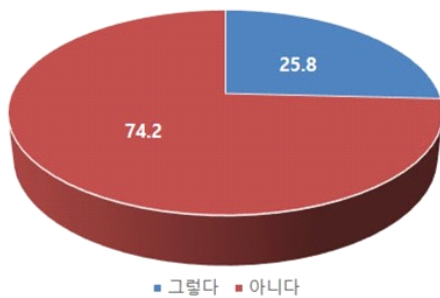
2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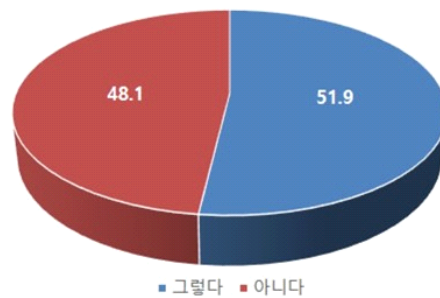
2. 활동 프로그램의 성인지적 운영 현황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성인지적 활동을 위한 지원

- 청운위 대상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실시하는 비율은 25.8%에 불과
- 청운위의 성인지적 활동을 위해 안내하는 경우는 51.9%
실질적으로 성폭력, 성차별 관련으로 추측(FGI)
- 성인지적 활동에 대한 개념이 없는 편, 관련 교육/지원이 미미한 편



<표> 청운위 대상 성인지감수성 교육 여부



<표> 청운위의 성인지적 활동을 위한 안내 여부

© Korean Women's Develo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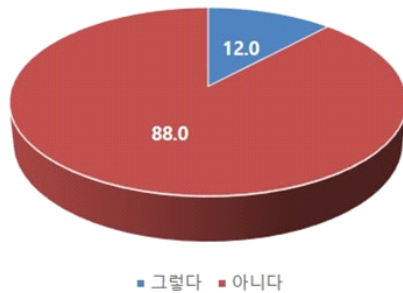
2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활동 프로그램의 성인지적 운영 현황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성인지적 활동 현황

- 청운위가 실제 성인지적인 활동을 하는 비율은 12.0%
- 기관 자체가 성인지 프로그램 운영 관련 지원을 받거나/자체 지침이 있거나/젠더담당관이 있거나/종사자 대상 연수가 있거나/실제 성인지감수성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는 경우 ;
청운위의 성인지적 활동 비율 또한 확연히 높아짐



<표> 청운위의 성인지적 활동 여부

© Korean Woman's Development

2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표> 청운위의 성인지적 활동 여부

		사례수(개)	그렇다	아니다
[전 체]		376	12.0	88.0
시설유형	수련관	138	14.5	85.5
	문화의집 등	209	10.5	89.5
	숙박형기관	29	10.3	89.7
지원 및 안내	있음	249	14.5	85.5
	없음	127	7.1	92.9
자체 지침	있음	36	19.4	80.6
	없음	340	11.2	88.8
젠더담당관 등	있음	40	25.0	75.0
	없음	336	10.4	89.6
관련 연수	있음	80	21.3	78.8
	없음	296	9.5	90.5
성인지 프로그램	경험 있음	94	22.3	77.7
	경험 없음	282	8.5	91.5

2. 활동 프로그램의 성인지적 운영 현황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성인지적 활동 현황

수련시설 환경 측면

- 남성화장실 칸막이/문 설치
- 여자 샤워장 시간 별 이용
- 생리대함 비치
- 기타

프로그램 관련 건의

- 참여자 성비(남성 청소년 참여 독려)
- 여성청소년 선물의 성편견(귀여움)
- 활동시 무릎담요
- 체육활동, 바느질, 공예 등에 성별 구분 없는 참여
- 남자 댄스팀 요청
- 남녀 선호 프로그램 요구, 성별 선호에 따른 물품 제작

신규 프로그램 제안

- 젠더의식(여성인권 포함) 관련 전문교육 운영
-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
- 성인지 관점의 중요성 캠페인
- 성평등 관련 정책 제안 주제 선정

청운위 활동 관련

- 프로그램 모니터링 시 성별 편중 되지 않도록
- 성인지적 관점 모니터링 및 관련 문항 추가
- 성별 문항에 성소수자를 위한 보기 표기

-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
- 실제 건의내용 중 77.8%가 실제 반영됨

© Korean Woman's Develo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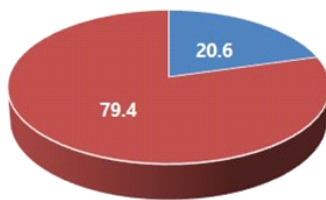
3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활동 프로그램의 성인지적 운영 현황

청소년지도사의 성인지감수성 교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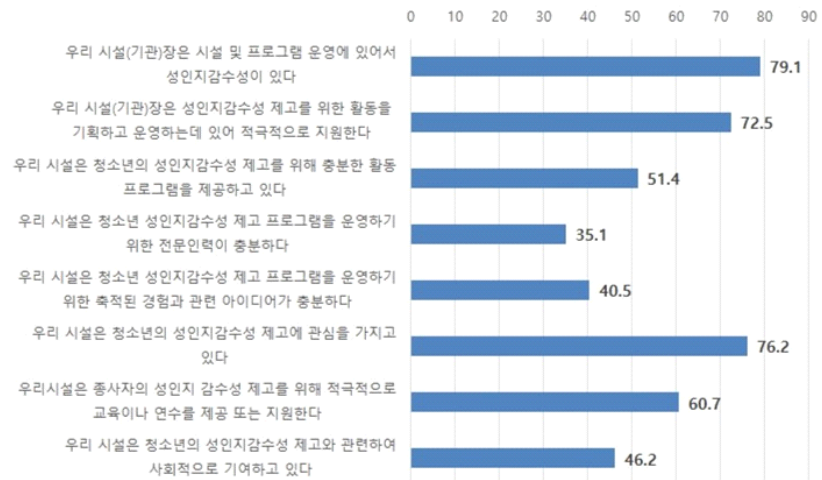
- 젠더담당관을 지정한 비율은 9.8%
- 대체로 성인지감수성/성평등의식 교육으로 한정



■ 있다 ■ 없다

<표> 청소년지도사 성인지감수성 연수/교육 여부 (최근 3년간)

- 대체로 시설/기관장의 성인지감수성을 긍정적으로 인식
- 다만 전문인력, 아이디어 측면에서 취약함을 느낌



© Korean Women's Develo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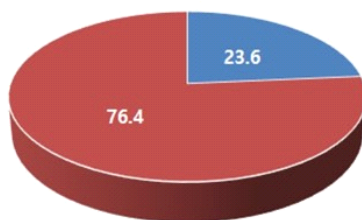
3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 성인지감수성 활동 프로그램 운영 경험

성인지감수성 활동 프로그램 운영 경험과 배경

- 성인지감수성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는 기관은 23.6%로 사분의 일채 되지 않음
- 주요 운영 배경은 지도사의 관심이 가장 주요한 요인이며, 그 외 정부지원이나, 기관장 의지가 반영



■ 있다 ■ 없다

<표> 성인지감수성 프로그램 운영 여부(최근3년간)



<표> 성인지감수성 프로그램 운영 배경

© Korean Women's Development

3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 성인지감수성 활동 프로그램 운영 경험

성인지감수성 활동 프로그램 내용과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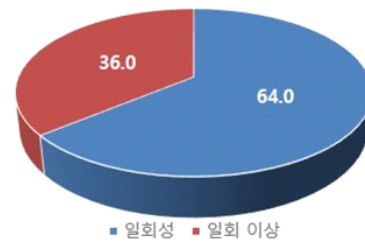
- 성교육, 인식 개선, 폭력예방이 주요 내용
- 관계 형성이 간혹 있으나, 진로/스포츠/미디어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시가 이루어지지 않음.
- 성별 참여는 비슷한 수준이나, 일회성이 다수 차지



<표> 성인지감수성 프로그램 내용



<표> 성인지감수성 참여자 성별 구성



<표> 성인지감수성 프로그램 형식

© Korean Women's Develo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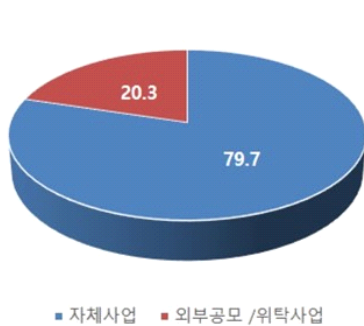
3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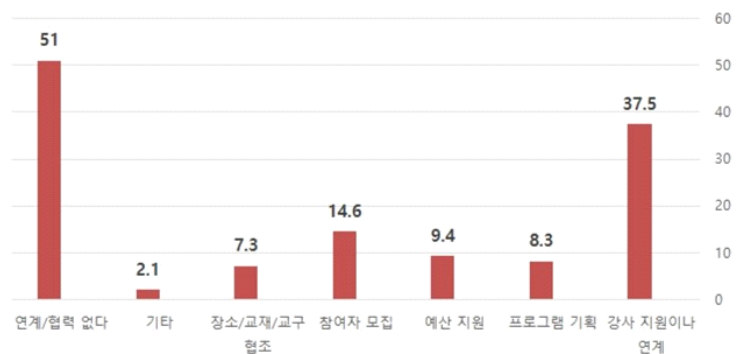
3. 성인지감수성 활동 프로그램 운영 경험

성인지감수성 활동 프로그램 예산 및 연계

- 성인지감수성 프로그램의 운영 예산은 주로 자체 사업에 의존하는 비율이 약 80%, 20%가 외부지원임
- 약 과반의 기관은 외부와 연계협력률 하고 있음.
- 가장 많은 내용은 강사지원이며, 그 외 참여자모집임. 예산, 기획 관련 협력의 경우는 드물게 나타남



<표> 성인지감수성 프로그램 예산 출처



<표> 성인지감수성 프로그램 운영시 외부 연계

© Korean Women's Develo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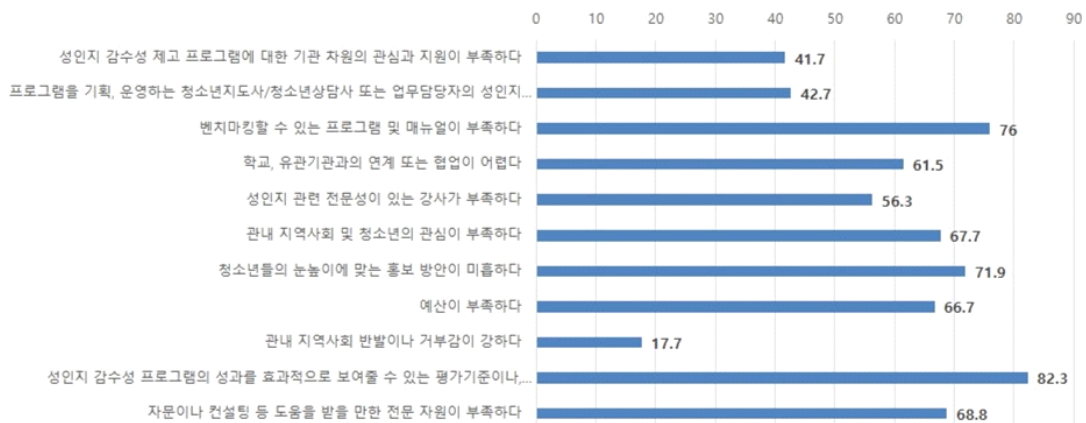
3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3. 성인지감수성 활동 프로그램 운영 경험

성인지감수성 활동 프로그램 운영 경험과 배경

- 성인지감수성 프로그램 운영 상의 가장 큰 어려움을 효과적인 평가기준의 부재, 매뉴얼의 부재를 꼽음
- 그 외 홍보 방안, 전문적 자문의 부재, 관심 부족, 유관기관 협업의 어려움을 꼽음
- 지역내 거부감은 낮은 편



<표> 성인지감수성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

© Korean Women's Develo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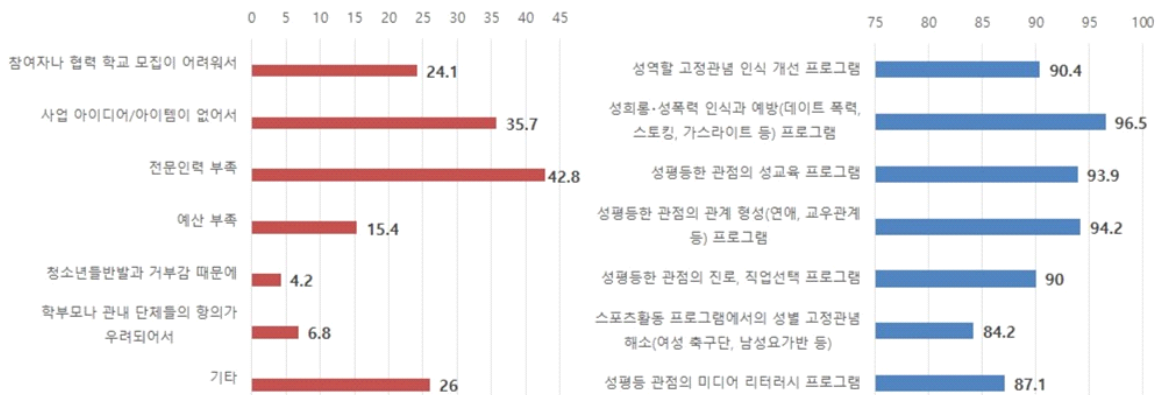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5

3. 성인지감수성 활동 프로그램 운영 경험

성인지감수성 활동 프로그램 운영 경험과 배경

- 성인지감수성 프로그램 미 실시 기관의 경우, 전문인력의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음(42.8%)
- 그 외 사업 아이디어/아이템이 없어서
- 그러나 이들 기관도 전반적으로 필요성은 높게 인식함. 특히 젠더폭력, 관계 형성, 성교육 분야의 요구가 가장 높고,
- 인식 개선, 진로선택도 중요한 이유로 꼽고 있음.



<표> 성인지감수성 프로그램을 미 실시 이유

<표> 향후 성인지감수성 프로그램 필요성(미 실시 기관 대상)

© Korean Women's Development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6

3. 성인지감수성 활동 프로그램 운영 경험

성인지감수성 활동 프로그램 개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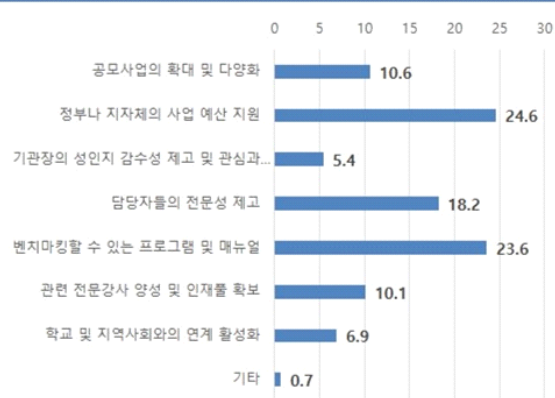
- 현장에서의 지원 요구는 예산 지원(24.6%)과 매뉴얼 지원(23.6%)이 가장 높고,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도 높은 요구를 보이는 항목임
-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청소년의 공감과 흥미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연령별 프로그램, 사회적 이슈 포함, 다양한 방식의 동원도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됨



<표> 성인지감수성 프로그램 효과성 제고 방안

© Korean Women's Development

37



<표> 양주 성인지감수성 프로그램 지원 요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Chapter

The First Partner for Gender Equality KWDI

4

정책 제언

- ✓ 성인지적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방안
- ✓ 청소년지도사의 성인지 역량 제고 방안
- ✓ 성인지감수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Korean Women's Development

© 최문정

1. 성인지적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방안

활동 프로그램의 성인지적 접근: 체크리스트 개발

- 콘텐츠 자체가 성평등 관련 내용인 것으로는 한계가 있음.
- 수련시설 자체가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가지고, 모든 과정에서 성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는 행동 자체가 중요 때문에 성주류화적(gender main-streaming) 접근이 요구
- 특히 현장에서는 간편하게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 개발 및 적용 필요

1. 청소년 참여·자치활동 영역 (부천시청소년수련관_부천시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참여·자치활동사업 check list!!		YES	NO	이행사항 및 결과
목적	1-1. 사업 목적을 설정할 때 대상자에 성별 특성을 고려하였습니까	☒	☐	성별 특성 고려, 균형 있는 모집과 참여 위해 노력
	1-2. 사업담당자가 사업을 기획·운영하는데 있어 성별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관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사전에 점검하였습니까	☒	☐	성인지적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1-3. 사업지원인력(지원지도자, 강사, 자원봉사자 등)이 성별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관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사전에 점검하였습니까	☐	☒	해당 사항 없음
	1-4. 사업지원인력 대상으로 사전에 성평등(성인지) 관련 안내 등을 하였습니까	☐	☒	해당 사항 없음
예산	1-5. 청소년 대상 성평등(성인지) 교육을 위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	☒	별도 편성되어 있지 않음
	2-1. 청소년을 모집하고 구성하는데 있어 성별 특성을 고려하였습니까	☒	☐	제1차 강사간담회에서 안내하지 못함
	2-2. 일련을 선출하고 구성하는 과정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하였습니까	☒	☐	성별 특성 고려, 균형 있는 모집과 참여 위해 노력
	2-3. 청소년 대상 역량강화 교육에 성평등(성인지) 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	필요로 포함되어있지는 않으나, 오리엔테이션이나 정기회의, 자료조사 등 필요한 경우 모두 안내
활동 내용	2-4. 참여·자치활동에 의견수렴이나 모니터링 과정에서 성별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	☐	담당자 중심으로 모니터링 함
	3-1. 사업인원에 대한 성별 분포를 작성하였습니까	☒	☐	상시 작성(파악 가능)함
성과	3-2. 참여·자치활동 결과에 대한 만족도나 차년도 요구사항 등을 성별로 구분하여 파악하였습니까	☒	☐	성별 분리하여 반영 예정
	3-3. 사업완료도 결과와 수에 대한 성별 특성을 차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	☐	성별 특성 고려하여 균형 있는 모집과 참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

부천 여성청소년재단 체크리스트 사례

- 모든 활동 프로그램에 체크리스트 적용, 평가
- 4개 유형으로 개발
1) 청소년 참여·자치활동 사업, 2) 청소년 교육(강좌) 사업, 3) 청소년 행사 운영 사업, 4) 청소년 시설(공간) 운영 사업

© Korean Women's Development

3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성인지적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방안

활동 프로그램의 성인지적 접근: 체크리스트 개발

-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체크리스트는 기존과 비슷한 기획-집행-평가의 큰 틀을 유지하되, 보다 간편한 체크리스트 구성을 위해 유형을 삭제하고, 비해당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사유를 기재
- 총평을 기재하여, 담당자 스스로 회고토록 함

<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성인지 체크리스트(안) : 시설 담당자용

구분	영역	세부항목	YES	NO	비해당
기획 단계	목적	프로그램의 목적이 성차별이나 성별 고정관념, 성별 편리를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목적이 성별 고정관념을 완화하고, 청소년의 성인지감수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포함하니까?			
	수요조사	수요조사에서 성별 비율은 균형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전 조사시 성별의 수요를 반영하고 있습니까? - 특정 성별의 수요가 과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산	프로그램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특정 성별에 치우쳐 사용되지는 않습니까?			
집행 단계	모집	모집 과정에서 특정 성별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집 과정에서 특정 성별의 비중이 지나치게 비대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내용	프로그램 내용 중에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가 고려되고 있습니까? 활동되는 자료 중에 성차별적인 내용이나, 이를 암시, 외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해당 프로그램에서 성별 인식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구분	영역	세부항목	YES	NO	비해당
집행 단계	지도자/외부강사	청소년지도자들이 성인지 감수성 관련 교육/연수를 적절하게 받고 있습니까? 초빙 강사에 대한 성별의 전문성을 확인하였습니까? 초빙 강사의 발언이나 지침이 성차별적이지 않습니까?			
	이용 시설	이용 시설 중에 성별에 따라 불편함과 익숙함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일수 시설이 특정 성별만을 위해 사용되지 않습니까? 시설 이용에 있어서 제도적, 규칙적적인 성별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까?			
평가 단계	모니터링	활동 과정 중에 성차별이나 성희롱 등의 차별 사례를 모니터링 하십니까?			
	실적보고	결과보고 작성 시 성별 분리 통계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결과보고 작성 시 해당 프로그램의 결과가 성별에 따라 미칠 영향을 적시하고 있습니까? 만족도조사에서 성별 분석을 실시하십니까?			
	환류	프로그램 실적 분석 결과물 이후 프로그램이나 사업에 환류함에 있어서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비해당 사유					
총평					

© Korean Women's Development

4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성인지적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방안

활동 프로그램의 성인지적 접근: 체크리스트 개발

- 기존 사례는 기관 담당자용으로 한정,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개발
- 청소년의 경우, 모니터링 결과를 환류 가능한 권한이 있는 청소년위원회용으로 제작함
 - 실제 청소년위원들의 성인지적 관점으로 모니터링하는 사례가 거의 없고, 이에 대한 인지도 낮은 편
 - 청운위의 경우, 시설 운영에 개입 가능하다는 점에서 체크리스트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

<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 성인지 체크리스트(안)
: 청소년운영위원회용

영역	세부항목	YES	NO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성비가 균형적입니까? 균형적인 성비를 위해 모집 단계에서의 조치가 있습니까?		
청소년 수요조사	청소년 대상 수요조사 시 성별의 차이 등을 고려한 조사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함에 있어 성별 분리 통계를 제시하고, 성인지적 관점에 따라 해석하고 있습니까?		
시설 관련	이용 시설 중에 성별에 따라 불편함과 익숙함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일부 시설이 특정 성별만을 위해 사용되지 않습니까? 시설 이용에 있어서 제도적, 규칙적 적인 성별 제안이 있지는 않습니까?		

© Korean Women's Development

영역	세부항목	YES	NO
시설 내 활동 프로그램 관련	해당 시설에서 실시하는 활동 프로그램 중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가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점검하고 있습니까? 해당 시설에서 실시하는 활동 프로그램 중 지도사-청소년, 강사-청소년, 청소년-청소년 간 혐오표현이나, 성차별적 발언 및 행동이 있었는지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까? 일부 활동 프로그램에서 특정 성별의 참여가 과표집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까? 해당 시설에서 실시하는 활동 프로그램 중 성인지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까?		
기관장 및 종사자 대상	기관장이나 청소년지도사, 그밖의 종사자들의 성평등의식과 수준에 대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까? 기관장 면담이나 자자체, 상부 위원회 등에 해당 시설 내 성인지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까?		
결과보고 작성	결과보고서 작성 시 성별 분리 통계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결과보고서 작성 작성 시 청운위 활동이 결과적으로 성별에 따라 미칠 영향을 적시하고 있습니까?		

4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성인지적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방안

공모사업 등 예산 지원 확대

- 현장에서 지원 요구가 가장 높은 것은 예산 지원
- 공모사업에서 성인지감수성 영역이 마련된 것은 '19년부터이나, 성인지감수성 프로그램 운영 경험 사례의 약 1/4가 공모사업
 - 성인지감수성 공모사업 지속
 - 현재 여가부 청소년 대상 미디어교육 사업, 참여형 성평등 문화 추진단 사업 등에 청소년 지분을 넣는 방식(여성정책국)

관련 매뉴얼 개발

- 지원 요구가 가장 높은 사항 = 매뉴얼 개발
- 현장에서는 관심이 있고,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어떻게, 무엇을 해야할 지에 대한 고민
 - [필요성, 추진 방법, 프로그램 구성방안, 체크리스트, 사례 등]을 담은 매뉴얼 개발 시급

컨설팅 실시

- 전문인력에 대한 부족, 전문성에 대한 불확신이 크게 나타남
 - 보안 방법 : 프로그램 컨설팅이 정례화 필요
 - 현재는 공모사업에만 실시 중
 - 전체 기관,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성인지 관점의 컨설팅 제공 필요

© Korean Women's Development

4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청소년지도사 성인지 역량 제고 방안

청소년지도사 양성 단계에서의 성인지감수성 제고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2/3은 지도사 개인의 문제의식과 관심에서 출발
- 지도사의 성인지감수성 제고는 현장에서 성인지감수성 프로그램 확대하는 중요한 자원
- 현행 양성단계에서 젠더 관련 과목은 완전히 부재
- 필수 과목 내 젠더 관련 과목을 투입하거나, 선택과목 체제로 개편하여 투입하는 방안 필요(평생교육사)

분	검정과목	검정방법
1급 (5과목)	청소년연구방법론, 청소년 인권과 참여,	주·객관식
	청소년정책론, 청소년기관운영, 청소년지도자론	필기시험
2급 (8과목)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면접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소지자는 면접시험 면제
	청소년문제와 보호	
3급 (7과목)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활동,	면접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지도사
필수 이수과목

평생교육사
필수 이수과목

필수과목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 현장실습 포함)	
선택과목	
실천영역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독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방법영역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 Korean Women's Development

4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청소년지도사 양성 단계에서의 성인지감수성 제고

- 필수 교수요목에 젠더 관점을 투영
- 과목개요와 주차 내용을 재기술, 재구성

검정 교과목	청소년문화(2,3급 공통) ※ 과목명예 문, 학, 연구, 과정, 세미나 이론 등이 포함된 경우도 인정
교수요 목	1주차 사회와 문화, 청소년
	2주차 문화와 청소년문화의 개념과 특징
	3주차 청소년의 특징(가치관 등)
	4주차 사회변동 속에서 청소년이 갖는 위상과 특징
	5주차 청소년과 대중문화
	6주차 청소년 사이버문화
	7주차 청소년 성문화
	8주차 청소년 여가(놀이)문화
	9주차 청소년 의복문화
	10주차 청소년 언어문화
	11주차 청소년 (도래)집단문화
	12주차 청소년 학교문화
	13주차 청소년 비행문화
	14주차 청소년의 문화양식(최근 나타나고 있는 현상)
	15주차 청소년문화정책의 과제와 방향

© Korean Women's Development

4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청소년지도사 전문과정 개설

- 양평원 보수교육과정이 있지만, 보다 심도있고 탄력적인 전문과정 개설 필요
- 양성과정에서의 결핍 문제를 해결하고, 현장에서의 전문적 역량 제고
 - 청소년의 문화 특성은 시시각각 변화
 - 관련 젠더관점의 해석과 이해, 훈련 필요
- 기본적으로 양평원의 보수교육과정의 기초 유지
 - 1) 성인지 관점의 이해 및 최근 성평등 이슈 살펴보기, 2) 청소년 문화의 이해, 3) 성평등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기획, 운영 실제
- 다만, 여기에 살을 붙이는 과정 필요
 - 청소년의 문화에 대한 이해
 - 성평등 법, 제도에 대한 기초적 수준의 이해 (특히 아동법 관련, 젠더폭력 관련)
 - 다양한 성인지 관점의 청소년 프로그램 사례
 - 프로그램 운영에서의 성인지적 추진방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The First Partner for Gender Equality *KWDI*

Thank You

초·중·고·대·평생 교육의 요구현실과 활성화 방안

www.kwdi.re.kr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영로 22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Tel. 02-3156-7176
E-mail : cyj@kwdimail.re.kr

© Korean Women's Development

© 최은정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방안 토론

김미희 관장(부천시청소년수련관)

유성렬 교수(백석대학교)

이명화 센터장(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전길양 교수(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토론 1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방안 토론

- 청소년활동과 성인지? 왜? -

김미희 관장(부천시청소년수련관)

1. 성인지에 주목하다.

부천시청소년수련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성인지 관점을 청소년사업 운영 전반에 반영하는 것이다. 모든 청소년사업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는 것과 함께 성평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 지금까지의 사례들이 주목받고 있다.

수련관에서 이 과제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청소년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사건(?)들 때문이다. 청소년활동 중에 겪었던, 어쩌면 무심코 지나칠 수 있었던 불편함으로부터 출발하게 되었다.

부천시청소년수련관은 문화예술특성화 청소년시설로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과 공연을 기획, 지원하고 있다. 그 활동 과정에서 여성혐오 표현이 여과 없이 가사로 불리기도 하고, 여성은 노출이 강한 의상에 자극적인 안무를, 남성은 힘있고 강한 안무와 제스처가 ‘멋있음’, ‘예쁨’이란 단어로 포장되기도 하고, 때때로 이유 없는 대립과 야유, 비하가 이어지는 장면들을 목격하기도 한다.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적인 언어, 행동, 생각들이 여과 없이 내뿜어지고, 그것에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거나 불편함을 느껴도 회피하거나 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청소년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결코 사소하게 넘길 수 없는 현실적 고민으로부터 ‘성인지’에 주목하게 되었다.

2. 성인지에 집중하다.

불편함을 인식하는 것!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 인식과 인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수련관 지도자들과 함께 청소년사업의 기본원칙을 다시 설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찾게 되었다. 바로 성인지 관점을 청소년사업 운영 전반에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게 부천시

청소년수련관만의 ‘성인지’를 시작하게 되었고, 청소년활동의 기본가치로 ‘성인지’에 집중하게 되었다.

수련관의 연초 운영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10회가 넘는 집중 워크숍 등을 거쳐 ‘성인지’라는 키워드에 집중하였고, 그 결과 ‘성인지’는 하나의 단위 사업을 넘어 모든 청소년활동과 일상에 반영되어야 하는 기본가치임을 확인하였다. 청소년사업의 기본원칙이자 우리의 일상에 온전히 저며들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성인지적 노력’들을 찾아 시도하였다.

첫 번째, 성인지 교육

청소년 참여·자치활동, 행사 등 모든 사업 시작 전, 참가 청소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한다. 지도자뿐만 아니라 수련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와 청소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주기적인 전문교육으로 성차별, 성별 고정관념을 의미하는 언어와 사고,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다짐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언어와 행동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변화의 조짐들이 보여지고 있다. 강사는 교육내용에 성차별적인 요소는 없는지, 청소년을 지도할 때 무심코 성별 고정관념적인 언어와 행동은 하지 않는지 점검한다.

청소년활동에서도 청소년 스스로 디자인, 문구, 색상, 역할 등을 정할 때, 문화예술활동에 서는 가사를 쓰거나, 안무, 의상, 곡 등을 선정할 때 성차별과 성별 고정관념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는 성인지 전문교육 후 시설·프로그램 모니터링 활동 시, ‘성인지’ 관련 시각으로 모니터링 영역을 확대하여, 성인지감수성과 인권감수성을 고려한 청소년시설 운영을 점검하고 있다.

두 번째, 성인지 체크리스트

지도자와 강사, 보조인력 등은 모든 사업의 기획, 진행, 평가 단계에서 성인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다. 모집과 홍보, 진행과정, 공간 구성, 평가 등에서 성차별, 성별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사업기획과 진행 과정에서의 한계가 없는지, 특정 성별만이 아닌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고려하였는지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세 번째, 성별 통계 분석

수련관의 사업과 공간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성별 통계하여 파악하는 한편, 청소년사업과 활동 종료 후에 실시하는 설문결과를 성별로 분석하여 프로그램 만족도와 효과성을 확인하고, 향후 사업 수립과 참가자 모집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네 번째, 성인지 대표 사업 개발

청소년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사회문화적 가치를 학습하므로 청소년이 접하는 모든 장면 속에서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적 사회문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성평등한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부천시청소년수련관은 2019년부터 청소년, 그리고 지역과 함께하는 성인지 사업을 개발하여 확산하고 있다. 특히 1인 담당자만의 사업이 아닌 기관의 사업으로서 유닛팀을 구성하여 함께 운영하고 있다.

2019년에는 ‘성격차이(성의식 격차는 이렇게 바꾼다)’라는 사업명으로, 일상 속 고정관념을 인식하고 우리가 함께 만드는 성평등한 학교 만들기를 목표로 중학교를 대상으로 성인지에 대한 기본 개념과 개선을 위한 교육을 하였으며, 성평등 마인드맵과 키워드 토크, 미디어 바꾸기, 성평등 공모전, 갤러리 투어, 성평등 다짐 등의 청소년 참여형 프로젝트와 실천적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여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형 프로젝트로 일상적인 공간이자 가장 성별 고정관념이 뚜렷한 공간인 화장실 픽토그램 공모전을 진행하여 청소년과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픽토그램을 학교와 청소년시설에 설치하였다. 교육에만 그치지 않고 성인지 교육을 기반으로 청소년의 의견과 청소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하고, 이를 지역에 확산시켰던 과정들은 청소년과 지역 모두에게 지금까지 쉽게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경험으로 남았다.

다회기의 성인지 프로그램을 학교와 연계하여 시작한 부천 내 첫 사례라는 점, 강사와 기관 실무자가 협업 파트너로서 교육내용을 연구하고 활동자료를 개발하였다는 점, 교육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천활동과 결합하고, 청소년이 만든 화장실 픽토그램을 학교와 지역 청소년시설에 확산하였다는 점 등의 성과를 남겼다.

2020년에는 ‘성격차이 시즌2’로 기존 중등에서 초등으로 대상을 확장하여 성평등 키워드 토크,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의 의미, 일상에서 듣고 싶지 않은 말,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에 대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성평등한 동화책을 만들어 전시하고, 나름다움을 위해 다짐하는 시간으로 구성하였다. 기존 활동 중 참가자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화장실 픽토그램 공모전을 초등 대상으로 확대하여 그 수상작을 학교 화장실 픽토그램으로 교체하였으며, 지역으로 확산시켜 보다 많은 시민과 공감할 수 있도록 6개 청소년시설, 1개 공공시설 대상으로 화장실 표찰을 교체하였다.

초등으로 교급을 확대하고 맞춤형 교육·활동자료를 개발한 점,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기관과의 연계 활동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청소년의 성인지 교육 필요성을 인지하고 함께했던 학교의 의지가 있었다는 점, 전면 비대면 상황을 고려하여 활동자료와 기자재 등 비대면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성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청소년 성인지활동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청소년 수련활동인증제 프로그램으로까지 개발하게 되었다.

성인지 사업 3년 차인 올해는 ‘연애의 재구성’으로 청소년과 만났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연애 경험이 있고, 처음 이성교제를 해 본 시기는 초등학교 때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소년들에게 일상, 학교생활 등에서 접할 수 있는 성차별, 성역할 등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을 확인하였고, 더이상 예방교육으로 그치는 성교육이 아닌 현재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내용이자 호기심을 자극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연애”를 콘텐츠로 한 성인지 감수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초등학교 청소년에게는 미디어 사례와 서로에 대한 존중을 토대로 자연스럽게 연애에 대한 생각 나누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중학교 청소년에게는 나를 포함한 모두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과 함께 연애 관계 속 역할은 성별로 나뉘는 것이 아닌 개인의 특성에 따라 나뉘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음을 인지시킬 수 있는 활동으로 전개하여 충분히 청소년 연인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 비대면 양방향 활동자료로 제작하여 학교 운영 방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올해는 대상학교를 발굴하는 노력을 시작하기도 전에 성인지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먼저 요청하는 사례가 많았다.

3. 성인지를 외치다.

이렇듯 청소년 현장에서 마주하게 된 현실적인 고민으로 출발했던 부천시청소년수련관의 성인지 관점 적용 노력들은 이제 더 이상 수련관만의 성인지가 아닌, 지역을 넘어 청소년의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신규사업 개발·운영에 전국적 선행사례로 발돋움하고 있다.

성인지 사업의 결과물들을 청소년과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하였고 초·중·고 학교장과 교사, 부천 지역 여성기관, 청소년기관 종사자들에게 청소년 성인지 사업과 성인지 관점을 적용한 운영사례를 공유하였다.

화장실 픽토그램 공모전을 진행하여 학교와 부천·서울 청소년시설, 아파트 관리동 등의 공공시설에 성인지 관점을 적용하여 디자인한 청소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화장실 표찰로 교체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한 과제 발굴과정에 유일한 청소년기관 대표로 참여하였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에서도 기관장, 사업담당자가 참여하여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수련관의 사례를 적극 공유하였다.

우리의 사례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확신을 바탕으로 그간 축적되어온 노하우와 개발된 매뉴얼/자료, 그리고 사업 추진사례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타 기관, 타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을 확인하며, 열심히 ‘성인지’를 외치고 있다.

4. 성인지를 제안하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방안 연구〉에서의 정책 제언(250p) 중 ‘청소년의 성인지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자체가 성평등 관련 내용인 것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청소년수련시설 자체가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가지고, 모든 사업에서 성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는 행동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프로그램적인 접근만이 아닌 청소년시설의 조직문화와 청소년지도자들의 인식의 변화가 절대적으로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 교육과 조직문화 점검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야 한다. 청소년지도자들의 높은 성인지 감수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성인지적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청소년지도자 교육을 위해서는 청소년활동 맞춤형 성인지 교육 콘텐츠의 개발도 필요하다. 여러 차례 성인지 교육에 참여해본 결과 대부분의 내용이 중복되며, 성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으로 개념을 이해하고 감수성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나, 청소년지도자의 입장에서 청소년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사례들이 부족하다.

또한, 청소년지도자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일에도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강사, 교사, 가족, 지역사회의 변화 없이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 교육의 효과는 지속되기 어렵다. 각각의 주체별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매뉴얼과 방식이 필요하다.

청소년 성인지 교육 자료와 매뉴얼의 개발도 필요하다. 성인지 사업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교육 매뉴얼 부재가 난관 중에 하나였다. 교급별, 활동 사례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를 제안하였는데, 체크리스트 적용에 앞서 청소년들에게 반드시 성인지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을 통해 성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해야만 제대로된 체크리스트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체크리스트에 작성되어 있는 항목들은 정확한 개념의 이해 없이 단순히 체크할 사항들이 아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도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끼고, 느끼는 만큼 변화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야 한다.

5. 청소년활동과 성인지? 왜?

어쩌면 너무 당연해서 그동안 놓친 것은 아니었는지 모르겠다. 청소년활동에서 성인지성을 반영하는 것이 청소년의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말이다. ‘성인지’에 주목하고, 집중하게 되면서 그 의미의 크기가 점점 더 체감되고 있다. 지역, 청소년, 학교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응답하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막상 경험해보니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진다. 성인지 교육, 성인지 체크리스트, 성별통계, 3년간의 성인지 사업까지, 하나의 단위 사업을 넘어 모든 청소년활동과 일상에서 반영되어야 하는 기본가치로서 청소년활동 전반에 있어 성인지성을 높이기 위한 확장이 매우 필요함을 다시 한 번 느낀다.

청소년 정책과 사업에서 성인지 관점이 고려되고 적용되는 사례는 아직 보편적이진 않다. 이제 막 토론의 장이 열리고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어떻게 시행할지 논의하는 정도이다. 그런 와중에 몇몇 지역에서는 기관(지도자)의 노력으로 청소년 대상 성인지 프로그램을 개발, 시도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꽤 고전을 겪고 있는 지역(기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고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함께 내달려 줄 더 많은 파트너가 필요하다. 진정성 있게 참여해주는 학교 교사들과 청소년, 열정으로 함께 길을 열어가는 강사진들, 전문성을 더해주는 성인지 전문가들, 지역에 확장될 수 있도록 동참해주는 지역의 기관들, 성인지적인 청소년활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자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

성인지 교육을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성의식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그에 따른 불편함의 격차 또한 커질 수 있다. 부천시청소년수련관도 부천의 청소년 중 아주 일부를 만났을 뿐이다. 더 보편적이고 확장적인 성인지 활동이 필요하다.

가끔, 어딘가에서 ‘성평등’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불편함을 느끼고 불안감이 조성되기도 한다. ‘성인지’ 교육이 더 이상 불편한 단어가 아니라 보편적 가치로서 서로가 존중하는 관계 교육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교육으로 이해되고 확장되길 기대한다. 그리하여 청소년의 오늘이 조금 더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토론 2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방안 토론

유성렬 교수(백석대학교)

-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고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활동 현장에서 성인지 감수성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 현실임.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은 물론 청소년활동 전반에 걸쳐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연구로 사료됨
- 연구진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물론 청소년활동 현장의 지도사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를 통하여 청소년활동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토대로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있음
- 연구진은 프로그램 관점에서의 성인지적 접근을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지도사들이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 평가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위한 체크리스트도 제시하고 있음. 또한 성인지 매뉴얼의 개발, 성인지적 프로그램 컨설팅 제공 등과 더불어 청소년지도사의 성인지 역량 제고를 위하여 자격검정 과정에 성인지와 관련한 과목을 추가하거나 전문과정을 개발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방안들이 적절히 시행된다면, 청소년활동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는 것이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연구진의 제안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 토론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 우선 청소년지도사용 체크리스트와 관련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행위만으로도 성인지 관점에 대한 청소년지도사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는 있을 것임. 다만, 각 영역이나 항목 별로 도달하여야 하는 바람직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아울러 제시하고 그러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에 대해 적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단순히 특정 항목에 대해 해당 여부를 표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기 위해 도달하여야 하는 수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할 것임
- 아울러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기획·운영·평가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개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아울러 개발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지도사의 평가 결과와 상이한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고 논의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청소년활동 시설 운영 전반에 걸쳐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청소년활동 현장에 부합하는 성인지 매뉴얼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연구진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임. 연구진도 간략히 언급하고 있으나, 이 매뉴얼을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성인지 프로그램 컨설팅과 관련하여 그 필요성과 더불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컨설팅을 해 줄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제시해 준다면 컨설팅 체계를 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청소년활동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지도사의 성인지 역량을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자격검정 과정에서 성인지 관련 내용을 보강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임. 현재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관련 과목에서는 성인지와 관련한 과목이 없으며, 자격검정 과목의 교수요목에도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음. 다만, 연구진은 육성제도 영역과 활동 및 보호 영역에 각각 별도의 과목을 추가하는 방안과 더불어 교수요목을 변경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는 바,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청소년육성제도를, 청소년활동론, 청소년문화론 등 관련 과목의 교수요목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우선 이러한 과목을 담당하는 대학 교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과목에서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등을 제시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학생은 물론 교수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과 관련한 제도 개선 시점에서는 성인지 관련 과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여야 할 것임
- 이와 더불어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과정에서 1급부터 3급까지의 자격연수 과정에 성인지와 관련한 시간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직무연수 또는 전문연수 과정에도 성인지 관련 과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과정에서 성인지 관련 교육 내용은 연구진이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사전 연구 및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토론 3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방안 토론

- 코로나 시기 불안의 연속, 그럼에도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길_ing! -

이명화 센터장(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1.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지금 이 시기 청소년 현장은 여느 활동 현장과 마찬가지로 불안의 연속이다. 그럼에도 청소년현장 활동가(종사자)들은 청소년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다채로운 경험을 체화하며 생존해 오고 있다. 위드코로나 시대, 이쯤 되면 “나는 불안과 함께 살아간다”는 책의 저자 스콧 스토크처럼 평생 불안증을 앓으며 일상의 삶 속에서 회복 탄력성을 기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는 그 자체로서의 삶이 어찌면 뉴라이프스타일의 양태일 지도 모른다.

2.

2020년 코로나 위기의 급습(2월)과 더불어 한국사회를 들썩이게 했던 사건중 하나가 소위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사건(4월)’이다. n번방 주범인 조주빈은 유례없는 형량 42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며 관련 일당들도 상당한 형량(문형욱 34년, 강훈15년등..)을 받았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은 종지부를 찍은 듯 보이지만 여전히 n번방의 존재 즉 여성아동청소년의 디지털성착취의 사실은 그물망처럼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바 아니다. 물론 n번방의 징조는 청소년성교육상담활동을 하는 현장에는 수년전부터 감지되어 온 바 사실이고 이에 대한 경고를 울리는 소리를 내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미약했고, 귀담아 듣는 이가 부족했으며, 정책으로 이어져 청소년들의 생활세계인 디지털세상에서 안전망이 만들어지는 것까지는 요원하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놀이터이며 배움터이자 삶의 공간인 디지털 세상은 망망대해 바다보다도 더 깊고 광활한 우주보다도 더 넓다.

3.

after 코로나 시대는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일상이 전환될지 예측하기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주요 변수로 주목해야 하는 것이 ‘디지털’과 나이·성별·국적을 넘어서 ‘개인주체’가 아닐까 싶다. 개인의 주체 담론은 포스트모던사회인 현대사회에서 새로울 것이 없어 보이지만 청(소)년세대의 ‘공정담론’과 ‘성별갈등프레임’ ‘소수자 혐오와 차별현상’ 등 최근 우리사회의 보족한 이슈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청(소)년 세대의 교차적인 위치와 위계 구조가 경합을 하며 빚어내는 불협화음과 기성사회질서에 대한 변화와 전환 그리고 전복에 대한 두려움과 저항으로서의 백래쉬가 작동하는 현상이다.

특히 10,20 세대의 성별혐오와 갈등노출 현상을 부추킴으로서 이득을 얻게 되는 소위 상업적 언론과 표에 부침하는 정치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비해 전통적 가치인 성별 이분법적 구조를 해체하고 성차별을 넘어서고자 하는 ‘개인주체’로서 공적 시민성을 담지한 공존의 주체로 청(소)년 세대를 부추키는 세력은 보이지 않는다.

4.

이러한 시점에 마련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공유와 토론의 장은 마치 청소년활동을 하며 현장에서 ‘성별혐오와 갈등 프레임 강화’ ‘디지털성착취 사슬의 위협’의 그늘 속에서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있는 청소년활동가들에게 우리도 ‘세력’을 만들기 위해 활동내용을 점검하고 정책적 시스템을 점검해 보자는 제안으로 읽혀져서 청소년성문화활동 현장에 있는 나에게는 연대의 손길로 감지되어 설레이기까지 한다.

5.

최윤정박사팀의 본 연구는 연구 취지에서도 밝혔듯이 우리사회 청소년 주요 의제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성폭력’ ‘여성혐오와 젠더갈등프레임의 강화’ ‘성인지감수성의 성별격차 강화’ 등 사회적 난제로서 정책적 개입에 대한 필요성 측면에서 볼 때 학교교육정책으로서는 교육부 정책 차원에서는 일부 가시적인 움직임이 있으나 정작 또다른 청소년정책을 다루는 여가부 청소년정책에서는 극히 미미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정책의 기본계획 속에서 성인지적 정책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을 도드라지게 분석해 낸 것 또한 의미있게 보여지는 연구결과이다. 20여년전부터 아동청소년성보호정책에서 성인지적성교육 청소년성문화활동 현장에 있는 당사자로서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 여성가족부 연간 청소년정책 계획을 살펴 보던 시선이 이 연구결과를 통해 드러나는 듯한 느낌에 반가움이 크다. 즉 ‘사실’은 없다. 누구의 시선으로 살펴볼 것인가, 어떤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볼 것인가? 렌즈의 선택권은 과연 누구에

게 있는 것인가? 늦은 감이 있지만 젠더렌즈로 청소년정책을 살피는 데이터를 마련한 것에 의미를 두고 싶다.

6.

그러나, 정작 또다른 렌즈를 끼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선 현장에서 융복합, 통합적, 통전적으로 청소년 당사자들과 생활세계를 공유하며 스킨십을 일상화하고 있는 청소년전문활동가들에게는 이 연구결과는 무슨 의미로 다가올까? 그러잖아도 복잡하고 배울 것 많은 세상 또 다른 탐다운방식의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한다는 말로 들릴까? 아님 그러잖아도 답답하여 사비들여가며 성인지에 대해 공부하고 개인인적 자원 동원해 관리자들에 눈치보며 성인지프로그램 운영했는데 한줄기 빗처럼 희망찬 소식으로 들려올까? 학교현장에서 의무교육으로서 폭력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성교육을 실시해야한다는 주장에 교육 피로감을 호소하며 볼멘소리를 하며 제도는 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되지만 그나마의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숨쉴틈을 내어주는 현실을 직시할 때, 우려와 부작용은 최소화하며 청소년활동과 복지의 현장의 역사성에 걸맞는 정책이 확장되길 바란다.

7.

본 연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정책적인 제언으로 크게 두 가지를 들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5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성인지적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방안 (프로그램 전반에서 성인지적 접근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성인지적 매뉴얼 개발, 성인지적 프로그램 컨설팅 제공)
- 2) 청소년지도사의 성인지적 역량 제고방안 (자격검정예의 성인지적 관점 반영/성인지전문과정 운영)

성인지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소년 전문지도자들의 목소리, 현장 우수모델 사례분석등을 통한 제언 도출이라 할 수 있으나 웬지 허전한 느낌을 감출 수가 없다. 작금의 한국사회문제분석과 청소년정책흐름을 분석한 결과에 비해 정책적 제언은 구조적인 접근 보다는 미시적 접근의 제안으로 읽혀지고 실현 가능성마저 의심스러운 구석이 많다. 체크리스트는 만들어 배포할 수는 있다지만 과연 현장에서 실용성 있게 운용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이 작동되어야 할 것인가? 기관의 성주류화를 위한 성인지적 매뉴얼 개발, 프로그램 컨설팅이 지속가능하고 실현가능한 효과성 담보를 위해서는 주체는 어디인가? 누구인가? 무엇인가? 기존 청소년전달체계내에서 어떤 단위에 주체를 만들 것인가? 청소년활동진흥원에 적어도 젠더전담부서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건전성가치관 육성이 주목적으로 되어 있는 청소년성 교육기관인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청소년정책으로 이관하고 그 기능을 확대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보다 적극적인 구조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제안이 덧붙여 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운영중인 청소년성문화센터관련 사업은 2009년 청소년정책이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어 오면서 청소년정책이 아닌 여성폭력피해관련 정책에 묶여 지금까지 여성권익증진국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설치시설 대부분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재단, 지자체 전달체제도 청소년정책 전달체제로 일선 현장에서는 청소년정책으로서 사업성과를 달성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여가부 내에서는 청소년정책의 성과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8.

또 다른 제안으로 청소년지도자의 성인지적 역량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자격검정과 전문연수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 예비교사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학점 이수(800분이수 필수 시행 중) 제도 도입에서의 난항이 있었던 것처럼 쟁투의 사안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스탠다드, SDGs, 청소년참여와 주체역량, 디지털시민성과 성적 시민성의 육성을 위한 전문활동가로서의 자격과자질 함양을 위한 학습영역으로 산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정책의제임에 대한 지속적인 필요성과 정책의지의 표명이 필요하다.

9.

마지막으로 연구내용 분석에도 나와 있지만 청소년활동현장의 성인지적 프로그램은 대체로 청소년을 주체로 세우는 프로그램임을 표명하고 있다. 현실적인 척박함 속에서도 청소년을 보호 내지 대상화 하지 않고 시대의 주인공으로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확대시키는 플랫폼으로서 청소년활동 터전과 활동가들은 기여를 하고 있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성인지적 인식제고라는 명제가 자칫 시대에 지체된 사람들을 위한 교정, 교조의 언어로서 전달이 아닌 민주시민으로서 역량, 디지털전환의 시대에 개인주체의 역량을 공적시민성의 역량으로 강화시키는 목적하에 청소년당사자 안에서의 힘있는 목소리를 조직하고 '세력'화 하는 일에 기여 할 수 있는 정책 기획 프로젝트를 계획하길 바란다(공모사업의 성인지 프로그램 비율을 늘리기도 해야겠지만 그 한계는 너무나 명확하다.)

토론 4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방안 토론

전길양 교수(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1. 청소년지도사와 성인지 역량

오늘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른 변화는 사회구성원들이 미래 사회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주도해 나가야 하는가에 관심을 촉발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은 청소년들이 사회변화와 발전의 주체로서 급격한 사회경제적 구조, 기술의 변화 등에 직면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핵심적인 역량을 갖춘 미래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지혜를 모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성별을 포함한 장애, 연령, 인종 등의 다양한 차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습과정을 통해 기술과 사회, 사람이 만나는 공간으로 확장하고 발전시키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세계 각국이 학교교육에서 여성이 진출이 빈약한 분야의 진로 즉, 체육, STEM 영역에서의 성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특화되고 다각적인 교육적 방안의 마련은 다양한 차별이나 성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교육기본법」개정으로 우리사회에서도 학교 교육에 있어 학교장에게 성평등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교육부가 양성평등교육 지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교교육에서 여성이 취약한 진로, 체육, 과학기술의 영역에서의 성평등을 촉진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을 마련하고 성별고정관념을 탈피한 진로선택과 이를 중점 지원하는 교육방안 마련 등(제17조의2)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 관계자들이 교육환경에 대한 통찰이 없으면, 남학생과 여학생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지도서를 가지고 같은 지도자로부터 배우지만, 다른 교육을 받고 있으며, 미래의 핵심주체인 청소년들에게 성별고정관념에 대한 기존의 규범을 내면화하는 사회의 축소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내용이나 담당자, 운영진 등에서 이런 통찰이 없다면, 청소년들은 기본정책, 교육과정, 교수학습법, 문화 등 다양한 공식적, 비공식적 과정을 통해 사회의 성불평등을 재생산할 수 있는 체계 내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기본법]을 근거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부여되는 국가공인 자격이다. 많은 다수의 연구에서 청소년지도사를 포함한 지도자의 역할을 ‘프로그램 기획자’, ‘프로그램 운영자’, ‘교육자’, ‘활동촉진자’, ‘관리행정가’, ‘변화촉진자’, ‘네트워크 구축자’, ‘네트워크 운영자’ 등으로 부여한 전문가로 규정하고 있다.¹⁾ 청소년지도사가 성별의 차이를 인식하고, 불평등과 문제를 감지하여 성역할 고정관념을 벗어난 융통성 있는 가치나 태도, 행동의 중요성을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에 반영하지 못한다면, 청소년들은 성별에 따라 다른 행동을 기대 받고 장려 받으면서 사회적 성별 고정관념을 확대 재생산하는 결과를 갖게 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성청소년지도사들의 성인지감수성 훈련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오늘 발표된 연구에서도 관련 기관이 성인지 감수성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에는 담당 청소년지도사의 관점과 문제의식이 크게 작용하는 것(69.8%)으로 제시하고 있어, 청소년지도사의 성인지 교육이 매우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청소년이 환경변화에 도전, 적응하며 협력하는, 창의 융합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지원적, 협업적 청소년정책>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을 통해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와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최창욱 외, 2019). 특히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과 청소년지도자의 역량제고를 중점 과제로 설정하여, 다각적으로 변화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현장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를 위하여 중, 장기적으로 청소년지도자 역량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청소년지도자 성인지 역량강화는 이와 같은 정책과제 내에서 지속적이며 단계적으로 체계화되고 점검될 수 있을 때 증진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청소년 관련학과 대학교, 전문대학, 대학원 등 학위과정 교과과정에서부터 실천될 수 있으며, 자격과정 및 업무종사자로서 전문가 연수과정에서도 지원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지도사 성인지교육 의무화 및 조직평가 체계에 반영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1) 최창욱 외(2019).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축방안 I : 청소년 활동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운영과 성인지 조직 역량

본 연구에서 보면 청소년 수련시설 중 성인지 감수성 관련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경우는 실제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 0.7%에 불과하며, 기관 및 조직차원에서 성인지적 프로그램 운영의 당위성이 인식되어야 운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기관장의 의지와 관심이 21.9%). 성인지 감수성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활동영역이 아닌 상황에서 시도하는 것이 부담이고, 따라서 기관 내 이에 대한 공감의 먼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여성가족부 정책의 성별영향평가가나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관련 교육 등에서도 그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기관 내 성인지 교육에 대한 합의가 공유되거나 조직 내 필요성이 제도화 될 때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관장 및 관리자 성인지 교육이 추진될 필요성이 있으며,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에서 성인지 교육 지원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²⁾.

교사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관련하여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성인지 교육이 올해부터 의무화되었으나 형식적인 교육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의원 2021.10.1.). 교원자격검정령' 개정(2021. 2.)에 따라 각 교육대학과 사범대, 일반대 교직과에서 성인지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내용과 교육 시간 등에서 큰 차이가 있고 이는 교원양성대학의 성평등교육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며, 각별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즉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관의 관리역량이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기관의 성인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임원 및 관리자 성인지 교육을 통한 기관 내 합의와 이해 수준을 높이고(의무화 및 제도화), 내실 있는 성인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매뉴얼 개발 및 지침 제공, 이행 수준의 평가나 보고체계 구축, 모니터링 체계 확립과 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의 업무협약(2019)을 통하여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성인지 전문과정, 7시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는 교과목으로 2~3시간 참여한 바가 있음. 교육생 설문 주요 결과를 보면(내부자료), 성인지 관점이 사회전반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초점이 있다는 교육내용이 좋았으며, 성인지 관점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 유익했음. 청소년활동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기관 내 존재하는 관습적인 차별을 인지할 수 있어 유익했으며, 지도자 모두 필수적으로 들어야하는 교육으로 제안한다는 의견이 있었음.(본 교육과정을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설문항목에서 타 보수과정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고 있어 실질적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냄)

이런 면에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체크리스트 개발(안)은 매우 의미가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체크리스트의 효과적 적용을 위해서는 영역별 세부 문항에 있어서 분명한 내용의 인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되지만, 현재 질문의 방향에 대해서 응답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되며, 명시적으로 즉각 인식할 수 있도록 내용의 부분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청소년지도사용 체크리스트 진행단계에서, 외부강사(지도사)의 연수가 시작되기 전에 초빙 강사에게 성희롱, 성차별적 언동에 대해 유의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침이나 확인서 등을 마련하여 적용 하는지 등 사전적 행동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재는 초빙강사의 발언에 대한 확인 등이 사업 중이나 사업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사전에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의 항목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MEMO

MEMO

MEMO

청소년정책토론회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방안

인 쇄 2021년 12월 2일

발 행 2021년 12월 2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6/7층 (044)415-2114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 계문사 전화 02)725-5216(代)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